

인터뷰

인생의 전환점 되어준 18일... “일단 도전해 보세요”

경희人(in) 실리콘밸리 : 마지막 이야기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nu.ac.kr

#. 융합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혀 다른 세 전공의 학생이 글로벌융합설계장학을 통해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전공을 모색하고 돌아왔다. 김도훈(응용화학 2013), 유재욱(한국어학 2012), 류성한(환경학 및 환경공학 2014) 씨는 세계 유수의 IT 기업이 모인 실리콘밸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경희 동문을 만나 글로벌 IT기업 진출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이 들은 이야기를 대학주제에 소개해 왔다. 마지막 순서는 18일 동안 실리콘밸리 이곳저곳을 누볐던 세 사람의 이야기다.

김도훈(응용화학 2013), 유재욱(한국어학 2012), 류성한(환경학 및 환경공학 2014) 씨, 세 사람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다. 세 사람은 대학 연합 동아리 ‘멋쟁이 사자처럼’에서 만났다.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코딩을 가르치는 동아리다. IT 비전공자임에도 IT를 꿈꾸는 세 명의 우리학교 학생이 전국대학생을 모집하는 동아리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 곳에서 쌓은 신뢰와 유대감이 셋을 실리콘밸리로 이끌었다.

시작은 사회 복지관에서 공의 근무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던 유 씨의 눈에 띈 몇 가지 문제점이었다. 유 씨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문제가 바로 노인들의 신원 관리 문제였다”며 “얼굴 인식 시스템을 생각했고 제작했으며 완성까지 조금 남은 상태에서 글로벌융합설계 장학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유 씨는 프로젝트를 김 씨와 류 씨에게 소개했고 셋은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글로벌융합설계 장학은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 각각의 전공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학제도다. 유 씨는 “컴퓨터공학이 부전공인 저와 전자공학, 산업경영공학을 각각 복수전공하는 팀원의 능력을 살려 지원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얼굴 인식 시스템 완성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 실리콘밸리로 떠나게 됐다”고 덧붙였다. 텁방을 위한 장



세 사람 모두 실리콘밸리 방문이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1번 사진 왼쪽부터 유재욱 씨, 류성한 씨, 김도훈 씨)



증은 회사 내부인이 서약서를 써야 발급된다”며 “셋이서 ‘여기까지 왔는데 구글은 보고 가야지’ 해서 구글 사내 모든 자전거 바구니에 우리 명함을 넣어놓고 연락을 기다렸지만 허사였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애플과 아마존에 있는 동문과도 연락은 닿았지만 동문의 사정으로 인터뷰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힘들게 얻어온 경험은 값졌다. 세 사람 모두 장학 프로그램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 씨는 “컴퓨터공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려던 계획이 좌절됐다”며 “그 때문에 삶이 정체됐는데 실리콘밸리를 다녀온 이후로는 ‘떨어질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류 씨는 “실리콘밸리에 가기 전까지는 복수전공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며 “하지만 미국에서 들었던 말처럼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해 봄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복수전공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좋아하는 일에 도전하다보니 좋은 일도 생겼다. 류 씨는 이번 겨울 방학부터 네이버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턴으로 활동한다.

김 씨 역시 “마찬가지로 복수전공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며 “하지만 직접 선배를 만나고 회사에 가보니 배웠던 공식과 회로도가 칠판에 적혀있는 것을 봤다”고 회상했다. 이에 더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니, 많은 것을 확실히 배워 내 능력치를 최대로 발휘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세 사람의 꿈을 만들어졌다. 유 씨는 결국 자신이 가야 할 곳은 실리콘밸리이며 “어려움은 있겠지만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류 씨는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뤄나가고 싶다”며 “또 다른 재미있는 분야를 찾게 된다면 그 쪽으로 눈을 돌릴 여지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를 떠받치는 하드웨어적 근간의 중요성도 깨달았다”며 “하드웨어도 잘 다루고 소프트웨어도 잘 다룰 수 있는 분야에 있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라는 꿈을 말했다. 그들의 꿈이 실리콘밸리로, 더 넓은 곳으로 향하기를 응원한다.

한국에서 배운 공식과 회로도가
실리콘밸리 회사에
적혀있는 것을 보고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린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학팀 선발은 텁텁한 프로젝트 설계를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통과했다.

실리콘밸리의 첫인상은 모두의 생각과는 달랐다. 류 씨는 “판교가 빌딩숲이라면 실리콘밸리는 벌판에 띄엄띄엄 건물이 있었다”며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네트워크였고 커뮤니티였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여러 나라의 능력자들이 모이고 바로 옆에 대학교도 있어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좋은 환경이라 생각했다”면서도 “집값이 엄청 비싸 능력뿐 아니라 경제력도 필요하겠단 생각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유 씨는 “세계 각지의 문화가 모여서 융합되는 모습이 신기했다”고 설명하며 페이스북 구내식당에선 김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세 사람은 18일 동안 총 10명의 동문을 만났다. 포트폴리오 공유 SNS인 ‘링크드인’에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경희대 출신’을 무작정 찾았다. 류 씨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현호(한의학 1990) 동문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한의학을 공부하고 의사자격증이 있는데도 컴퓨터 공부를 하려 학사과정부터 다시 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유 씨는 이학준(디지털콘텐츠학 1996) 동문을 뽑으며 “한국어학을 전공하지만 IT 개발자가 되고 싶은 저에게 어떤 도전의 자세를 지녀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한 분을 고르기가 힘들다”며 “모든 선배님들이 실

리콘밸리에 가기 위해 하신 노력들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나도 일단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류 씨는 김한규(전자공학 1986) 동문이 공부를 콩나물 기르기에 빗대 표현한 말을 본인 SNS 상태메시지로 설정해뒀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했지만 지금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긴가민가했다”는 류 씨는 “김 동문의 말을 통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대회에서 본 ‘dream it, build it, live it’이라는 구호를 인상적으로 끌었다. “꿈은 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현하기 위해 그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제 생각과 부합하기 때문”이란다. 김 씨는 최제이콥(정보디스플레이공학 석사 2009) 동문의 ‘어느 것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 “이런 능력을 키워야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경험은 소중했지만 계획이 틀어지기도 했다. 유 씨는 “선배 중엔 우리가 진짜 경희대 학생인지 의심하셨던 분도 계셨다”며 “그 분은 학과장 교수님에게 매일까지 보내 우리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꼭 견학하고 싶었던 구글은 포기해야만 했다. 구글에 재직 중인 동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 씨는 “외부인 출입

다시 태어난 녹원, 함께 울고 웃은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

김지원 기자 kjw990327@knu.ac.kr

【서울】 “여기 커피는 없나요?” “네 손님, 여기는 찾집이어서요.” 계산대 앞에서 이런 문답이 오갈 수 있는 곳은 회기동에서 유일하게 커피를 팔지 않는 카페, ‘녹원’ 뿐이다. 과거에도 이 자리에는 같은 이름의 전통찻집이 있었다. 과거의 녹원은 약 30여 년간 자리를 지켰고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녹원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같은 이름에 다른 간판을 하고서, 달라진 녹원의 모습이 궁금해 직접 방문했다.

정사각형 간판이 붙은 건물에 발을 딴자 푸른 잎으로 둘러싸인 입구가 가게 안으로 빨길을 이끌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계산대에서 메뉴를 골랐다. 습관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절로 한 단어를 찾기 시작했다. 눈을 씻고 보아도 찾는 메뉴가 보이지 않아 결국 점원에게 물었다. “여기 커피는 없나요?” 당황한 표정의 점원이 답했다. “손님, 여기는 찾집이어서요.” 아처 싶었다. 그제야 가게 안에서 커피향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메뉴판에는 아메리카노 대신 국화차, 녹차, 수국차, 청귤차 등이 자리 를 채우고 있었다. 민망함 반 호기심 반으로 녹차와 쑥이 들어간 초코 스콘을 주문



30년 동안 회기동을 지키던 녹원은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재탄생했다.

했다.

곧이어 주문한 메뉴가 작은 쟁반에 담겨 나왔다. 큰 머그잔에 티백이 띄워진 채 나오는 익숙한 모습이 아닌 손잡이가 달린 작은 찻잔과 유리 주전자가 나왔다. 소반에는 스콘과 대추 칩이 함께 담겨 있었다. 과거 녹원 튀기기 겹쳐보였다. 이처럼 현재의 녹원은 순간순간 과거의 녹원을 떠올리게 했다.

과거와 현재의 녹원을 잊는 연결고리는

쟁반 위에만 있지 않았다. 여느 카페와 같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있는 내부 환경에는 개다리소반과 방석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벽면에는 과거 녹원의 사진들이 자리했다. 소반과 사진은 재탄생한 녹원의 명맥을 알려주며 과거와 겹쳐 보이게 하는데 충분 했다.

그러나 과거의 것을 유지한 대에서 그치지 않았다. 새롭게 단장한 부분도 눈에 띠었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청귤 케모

마일, 오미자 레몬밤은 과거의 명맥을 유지한 차 메뉴이기도 하면서 세련됐다. 녹원은 본래 ‘초록 동산’이라는 뜻이다. 그에 따라 현재 녹원 역시 이름에 걸맞게 내부를 초록색으로 밝혔다. 녹원 김재용(조리서비스경영학 2016) 대표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녹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과거의 녹원 모습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재탄생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녹원은 불과 몇 년 전까지도 회기동을 대표하는 노포였다. 1985년 개업해 2016년 문을 닫을 때까지 녹원은 약 31년간 우리학교 곁을 지켰다. 과거 프랜차이즈 카페가 성행하기 이전에는 누가 뭐래도 경희인의 애지트였다. 첫사랑의 설렘부터 친구와의 소소한 잡담, 교수님의 따뜻한 조언이 흘啭인 찻잔을 다시금 채우는 곳이었다. 그러나 견고하고 생각되었던 노포로서의 입지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지난 2016년 녹원은 문을 닫았다.

그러나 폐업 소식을 접한 수많은 경희인들의 방문으로 녹원은 문을 닫는 그날까지 빨디딜 틈이 없었다. 심지어 ‘녹원 살리기 프로젝트’까지 진행됐다. 이런 아쉬움 때문에 이었을까. 녹원은 지난 9월 다시 우리 곁

로 돌아왔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하고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캠퍼스타운 사업과 합세해 학생들의 손에서 재탄생한 것이다.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단은 “과거 노포였던 녹원을 추억하며 현재와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다.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다시 태어난 녹원은 목표가 남다르다. 김 대표는 “녹원을 기점으로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것이 녹원이 그리는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녹원은 주변 상점인 캠플로그란스, 디저트 허리케인과 협업을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녹원이 회기동 상인들이 모여 상생방안이나 협업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 역할을 하겠다”며 그 계획을 밝혔다.

새로운 손님이 차를 주문하면 이따금 상큼하고 그윽한 향이 가게 내부를 채웠다. 차의 향이 공간을 채우는 것은 과거의 녹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의 녹원과 지금의 녹원 사이에는 공백이 있었기에 녹원은 분명 달라졌다. 그래도 녹원이라는 이름을 이어받은 만큼, 이따금 차 향기가 가득 차는 녹원으로, 경희인들의 희로애락이 빈 찻잔을 다시금 채우는 녹원으로 함께하기를 바라본다.